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6.02.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말씀 나눔

- 1) 말씀 듣기 : 마태 4,1-11(사순 제1주일 복음)
-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 3) 말씀 나눔

<묵상 더하기>

- 나는 최근 어떤 유혹 앞에서 멈칫하고 있나요?
- 나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 유혹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나요?

- 4) 자유 기도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2/18(수)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본 성전에서 20:30에 재의 수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이날은 의무 단식(1식)과 금육의 날입니다. 은총의 사순시기를 차분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21(토)-22(주일)에는 각각 다른 주제로 이틀간 사순 피정(허진혁 바오로 신부님)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인 공동체 3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체 기도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사목단상

“은총의 사순시기”

교회 전례력에서 사순시기는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파스카(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신비를 준비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날인 ‘주님 만찬 성 목요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통상 40일이라고 해서 사순(四旬)시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40이란 숫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와 정화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40년,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된 판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을 했으며,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르기까지 40일간 단식했다고 나옵니다. 또한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져 40일간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생활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고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짧지 않은 이 40의 사순시기에 하느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준비하며 부활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환의 기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회개하면서 기도, 단식, 자선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온갖 허영심에서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참되게 봉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총의 사순시기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